# 월급쟁이 평균 빚 4245만원…청년층 대출 46.8% 증가

### 정중앙 중위대출 4000만원…전년보다 12.4% 증가

### 40대 평균대출 6205만원 최다…30대>50대>70대

### 대출건수 3건 이상 직장인 평균대출 1억1431만원

지난해 말 기준 월급쟁이들이 평균 4245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6000만원을 넘어섰으며 청년층(29세 이하) 대출증가율도 50%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4245만원으로 전년(3964만원)보다 281만원(7.1%)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은 2017년 6월 3591만원, 2017년 3795만원, 2018년 6월 3810만원, 2018년 12월 3964만원으로 서서히 늘다가 지난해 6월 4081만원으로 4000만원대에 진입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개인이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임금근로자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자를 개인대출 잔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개인대출 잔액인 중위대출은 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40만원(12.4%) 늘었다.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56%로 전년과 동일했다.

임금근로자 중 남성의 평균 대출은 5372만원, 여성은 2876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49만원(6.9%), 198만원(7.4%) 증가했다.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남성은 0.60%로 여성(0.45%)보다 0.15%포인트(p)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5616만원, 50대 5134만원, 70세 이상 1495만원, 29세 이하 1243만원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60대는 149만원(-4.3%). 70세 이상은 9만5000원(-6.0%) 감소했다. 반면 29세 이하에서 396만원(46.8%)이나 증가했다. 30대도 691만원(14.0%) 늘었다.

대출이 증가한 연령대 중 29세 이하와 30대는주택외담보대출이 각각 85.8%, 20.4%로 가장 많았다.

주택외담보대출에는 예·적금담보대출, 주식 등 유가증권 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개인대출을 보유한 임금근로자의 중위대출은 30대가 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5356만원), 50대(4331만원)가 뒤따랐다.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은 70세 이상이 0.84%로 가장 높고 60대 0.82%, 50대 0.72% 순이었다. 30대가 0.38%로 가장 낮았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아파트가 513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246만원(5.0%) 증가했다.

이어 연립·다세대(3371만원), 오피스텔 및 기타(3236만원) 순이었다. 단독주택 거주자의 평균 대출은 280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오피스텔 및 기타 거주자의 평균 대출이 16.5%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 단독주택(12.7%)이 뒤따랐다.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은 아파트 거주자가 0.36%로 가장 낮았으며 연립·다세대(0.80%), 오피스텔 및 기타(1.10%), 단독주택(1.1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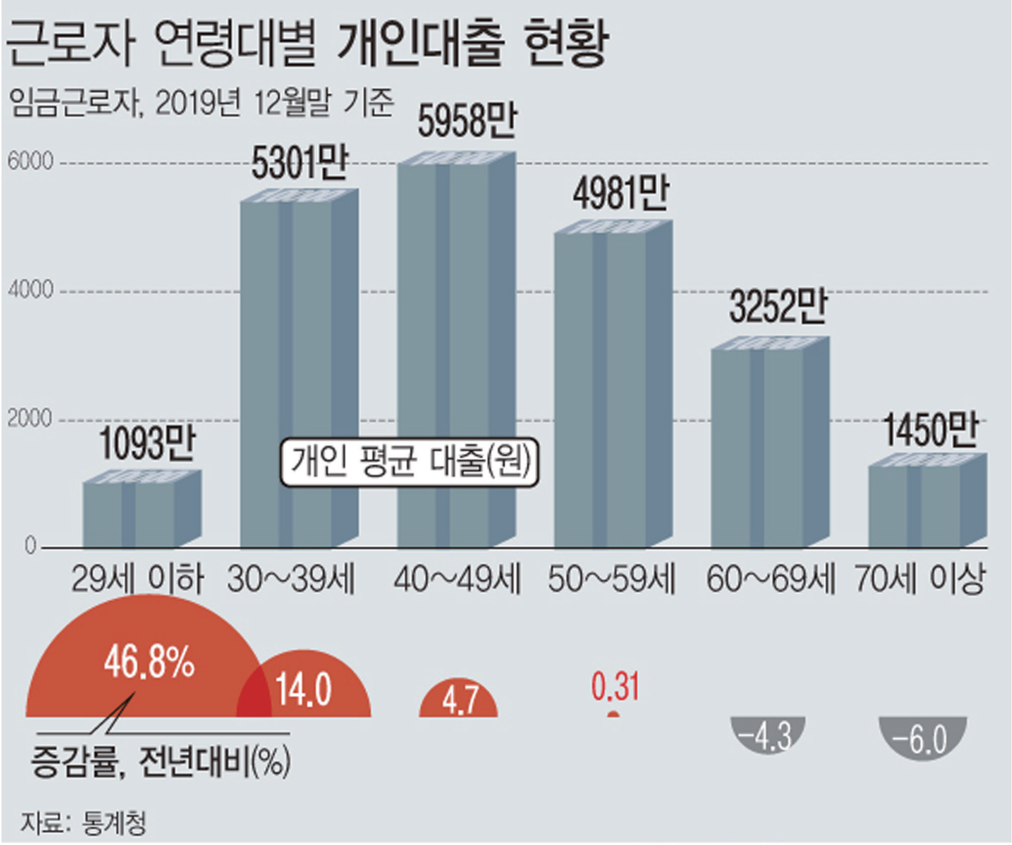
대출건수 기준 연체율은 오피스텔 및 기타(3.36%), 단독주택(3.12%), 연립·다세대(2.10%), 아파트(1.32%) 순이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다. 소득 1억원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1억5151만원이었다.

소득 7000만~1억원 미만의 평균 대출은 1억536억원, 5000만~7000만원 미만은 8539억원, 3000만~5000만원 미만은 5070만원, 3000만원 미만은 262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 3000만~5000만원 미만이 12.6%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3000만원 미만과 5000만~7000만원도 각각 8.3% 증가했다.

30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의 대출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저축은행, 카드 등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빌렸다.




대출잔액별로는 대출잔액 3억원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4억6520만원, 1000만원 미만 평균 대출은 409만원이었다.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1000만원 미만이 5.34%로 가장 높았으며 3억 이상은 0.44%였다.

대출 건수가 1건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4507만원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1억1431만원으로 1년 전보다 4.4% 늘었다. 2건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전년보다 4.7% 늘어난 832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민정 기자

---

## 40살된 쌕쌕…톡톡 씹히는 입안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 1980년 12월 출시…장수 브랜드로서 저력 보여줘

한 모금 마시면 입안 가득 탱글탱글한 오렌지 알갱이가 터지며 씹는 재미까지 더했던 과립과즙음료 '쌕쌕'이 올해로 마흔살을 맞았다.

1980년 12월 출시돼 국내 과즙음료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쌕쌕은 지난해도 약 580만캔이 판매되며 장수 브랜드로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쌕쌕은 롯데칠성음료의 음료 브랜드 중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미린다, 롯데오렌지주스에 이어 지금까지 꾸준히 판매되는 다섯번째 장수 브랜드다.

쌕쌕의 장수 비결은 '차별화된 식감'이다. 출시 당시 입속에서 '톡' 터지는 알갱이의 청량함과 상큼한 오렌지맛은 마치 신선한 오렌지를 그대로 씹어먹는 느낌을 주며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쌕쌕은 일명 과일 알갱이 음료의 대명사로 알려지며 과립과 비타민C가 들어있는 건강한 이미지로 당시 집들이나 병문안 선물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쌕쌕은 출시 이후 시장 변화에 맞춰 포도, 제주감귤로 제품군을 다양화했다. 2018년에는 쫄깃한 식감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기존 감귤류 알갱이 대신 코코넛 젤리를 넣어 젊은 소비자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쌕쌕은 광고도 화제를 모았다. '샤바라바라'로 시작되는 중독성 있는 CM송에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하와이안 춤을 추는 광고는 소비자의 기억 속에 쌕쌕 브랜드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광고는 1985년 국제 클리오 광고제에서 라디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1998년 한국조사개발원에서 발표한 '20년간(1978~1997년) 가장 인상에 남는 TV광고'에서도 공동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쌕쌕은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1981년 중동으로 수출된 초도 물량이 10일만에 완판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고 이후 미국, 싱가포르 등 10여개국으로 수출이 확대됐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40년간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수 브랜드 쌕쌕은 마시고 씹으며 입안의 즐거움을 주는 주스 브랜드의 대명사"라며 "앞으로도 쌕쌕만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은 지키면서 브랜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

## 건물 값은 오르는데 손에 쥐는 건 줄어들어…상가 투자 '경고등'

### 코로나19 영향…다중이용시설 매출 부진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상업용부동산의 자산가치는 늘었지만 임대소득 등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공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한국감정원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개월(7~9월)간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성과를 나타내는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1.32%, 중대형상가 1.14%, 소규모상가 10.8%, 집합상가 1.15%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은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을 합산해서 산출되는데, 상업용부동산 별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은 각각 오피스 0.82%·0.50%, 중대형상가 0.72%·0.41%, 소규모상가 0.68%·0.40%, 집합상가 0.95%·0.20%로 집계됐다.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 모두 손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올해들어 소득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수익률은 말그대로 현금화 되는 수입이기 때문이 감소할 경우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크다.

자본수익률의 경우 건물가격 등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나 대출을 받을 때 용이하다.

3분기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및 모든 상가 유형에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반면 올해들어 4가지 상업용부동산의 평균 소득수익률은 감소하고 있다. 1분기 1%에서 2분기 0.98로 다시 3분기 0.79%로 줄어들었다.

물론 3분기는 통상 재산세 납부 등으로 운영경비가 증가해 소득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올해 수익률은 소폭 감소했다.

3분기 오피스, 중대형상가, 소규모상가, 소득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05%포인트(p), 0.08%p, 0.07%p 줄었다.

소득수익률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공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매출 하락 및 폐업 증가로 이어졌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폐업점포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9월 현재 9720건으로 지난해 총 건수 6503건을 이미 넘어섰다.

기동취재본부

---

## 사업자 대출도 '빈익빈 부익부'

개인 사업자 중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의 평균 대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의 의료 기기를 빌려 쓰는 개인 병원이 다수 포함돼있는 산업이다.

이들은 연체율도 가장 낮은 축에 들었다.

반면 운수·창고업의 경우 대출액은 적고, 연체율은 높았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18년 일자리 행정 통계 개인 사업자(기업) 부채' 자료를 보면 같은 해 12월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출액은 4억8894만원이다.

조사 대상 업종 중 가장 큰 규모다. 2위인 부동산업(2억7839만원)보다도 2억원가량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사회복지업에 개인 병원을 개업하는 의사가 포함돼 대출액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건·사회복지업의 지난 2017년 평균 대출액은 4억6331만원이다.

업(2억7839만원)은 0.28%, 농림·어업(2억7630만원)은 0.37%다.

다만 업종과 관계없이 대출액 규모가 크면 연체율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2018년 기준 대출 잔액 10억원 이상의 연체율은 0.15%로 가장 낮다.

5억~10억원 미만 및 3억~5억원 미만이 0.19%, 1억5000만~3억원 미만이 0.22%다.

3000만~5000만원 미만은 0.27%고, 3000만원 미만은 0.60%로 가장 높았다.

2017~2018년 전체 개인 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5686만원에서 1억6428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27%에서 0.32%로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2018년 남성 개인 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8364만원, 연체율은 0.36%다.

여성은 1억3630만원, 0.25%다.

### 보건업, 대출금 가장 많고 연체율 최하위 수준

### 운수업, 대출금 가장 적고 연체율 점차 높아져

이 통계 작성 기간(2017~2018년) 보건·사회복지업의 평균 대출액은 1위 자리를 지켰다. 보건·사회복지업은 연체율도 최하위 수준이다.

2017년 연체율은 0.17%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낮고, 2018년에는 0.21%로 기타업(0.21%)과 함께 공동 최저를 기록했다.

운수·창고업은 정반대다.

2017년 평균 대출액은 5998만원, 2018년은 6323만원으로 조사 대상 업종 중 가장 적다.

2018년 기준 보건·사회복지업의 8분의 1 수준이다.

거꾸로 연체율은 높은 편이다. 2017년은 0.32%, 2018년은 0.47%다.

2017년에는 하위 8번째였지만, 이듬해에는 4번째로 상황이 더 나빠졌다.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2018년 기준 평균 대출액이 2번째로 적은 사업시설관리·임대업(8666만원)의 경우에도 연체율은 0.51%로 높다.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9267만원) 0.35%, 건설업(1억1248만원) 0.54%도 눈에 띈다.

같은 시기 평균 대출액이 많은 부동산

이 시기 연령별로는 50대 1억9060만원, 60대 1억7729만원, 40대 1억7159만원 순이다.

2018년 기준 종사자를 둔 개인 사업자는 평균 3억3695만원을 빌렸다.

종사자를 두지 않은 개인 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3147만원이다.

연체율도 종사자가 있는 개인 사업자는 0.16%, 없는 사업자는 0.41%로 차이가 있었다.

통계청은 개인 사업자가 가진 부채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 통계를 집계해 올해 처음 공개했다.

2018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개인(법인 제외) 585만144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 집계했다.

사업자 등록증을 기반으로 집계했으므로 임금 근로자 중 등록을 한 채 부업(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이 통계에 포함됐다.

택배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도 마찬가지다.

반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노점상이나 농어민은 제외됐다.

서선옥 기자